

## 의왕·수원 노동안전지킴이, 건설현장 합동단속

✎ 정용포 기자 | ⓒ 승인 2026.06.11 10:07

부곡센터 신축 현장 3대 사고 집중 점검..개선율 85% 성과



의왕시와 수원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18명은 6월10일 부곡센터 현장을 찾아 추락 방지 시설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사진=의왕시)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의왕시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인근 지자체 간 합동 안전 점검이 진행됐다. 인근 수원시의 현장 전문가들이 의왕 지역 건설 현장을 교차 점검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좁히는 시도다.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이번 공동 대응은 중소형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추락이나 끼임 등 고질적인 현장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왕시와 수원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18명은 6월10일 부곡센터 현장을 찾아 추락 방지 시설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단은 현장 전반의 건축자재 정리 실태를 살피고 비계 설치 상태를 점검했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과 부딪힘 위험 요소를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 시정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다.

현장 점검반의 주축을 이룬 노동안전지킴이는 지난 3월부터 의왕 지역 제조업체와 소규모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이들은 3개월 동안 237개 산업 현장을 368회에 걸쳐 불시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펜스 미설치나 보호구 미착용 등 총 491건의 위험 요인을 적발해 현장 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의왕시와 수원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18명은 6월10일 부곡센터 현장을 찾아 추락 방지 시설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사진=의왕시)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형 건설 현장이 주된 점검 대상이었음에도 현재까지 421건의 결함이 보완됐다. 시정조치 개선율은 85.7%에 달한다. 현장 대리인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지도 방식이 영세 사업장의 안전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교차 점검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기 남부권 지자체 간의 상시적인 안전 정보 공유 체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력과 예산 한계로 단속 가동력이 부족했던 기초지자체가 연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만드는 대안이다.

의왕시는 노동안전지킴이의 순찰 인력을 하반기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 집중 배치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정용포 기자 yongpojung@daum.net

---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